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7일 일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66호

공동보도문 발표

6.15공동선언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일시 동결되였던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한다

6일 오전 11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임동원 특사가 남북회담사무국 3층에서 북측과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은 이날 같은 시각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기로 합의되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남측의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다.

체류기간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이 과정에 쌍방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정세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남북 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②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데 따라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2년 4월 5일 평양

김정일총비서, 임동원일행을 접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4일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의 특사인 림동원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그 일행인 국가정보원 차장 김보현, 통일부 국장 조명균, 청와대 국장 서훈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와 림동옥제1부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특사는 **김정일**령도자께 보내온 김대중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특사와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특사일행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그리고 5일에는 남측 특사일행을 위한 오찬이 있었다.

오찬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와 강능수문화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안경호국장 등과 남측특사인 림동원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국가정보원 김보현차장, 통일부 조명균국장, 청와대 서훈국장 등 일행이 오찬에 초대되였다.

오찬은 호상 리해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5일

김일성주석 90회 생일행사 열기 고조

김일성주석의 90회 생일(4.15)이 다가오면서 평양은 지금 생일 경축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북방송들에 따르면 4월들어 본격 개막되기 시작한 김 주석의 생일행사는 6일 하루 동안에만도 평양미술축전을 비롯해 중앙사진전람회 등 주요 기념행사들이 잇따라 진행됐다.

6일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는 평양미술축전 행사의 일환인 ≪신인미술전람회≫와 ≪기념품전시회≫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중앙사진전람회≫가 개막되었다.

정하철비서는 개막 연설에서 이번 사진전람회에는 김주석의 영도업적과 풍모를 보여주는 170여점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김주석과 **김정일**총비서에 대한 충성심을 대를 이어 높이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의 선전화들도 이날 출판되어 생일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중앙방송은 전했다.

중앙방송은 선전화들 가운데는 ≪만경대고향집≫과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형상한 선전화와 백두산의 천지를 배경으로 ≪태양의 꽃≫을 그려넣은 선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김일성**화 전시회≫ 분위기를 더욱 이채롭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송은 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가무단을 비롯해 러시아의 민속무용단과 독일, 몽골 등 세계 5대륙의 예술 사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의껏 준비한 작품들을 펼쳐 보이며 특색있는 봄축전 무대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용기자
연합뉴스 2002/04/06

이회창에 대한 지지율, 10%선으로 하락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타≫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의 사이에 각계층 성인남녀 1330명을 대상으로 ≪이회창이 대선에 출마하면 지지하겠는가, 반대하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표를 찍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69.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지표를 찍겠다는 사람은 16.3%에 불과했고 나머지 14.3%정도는 선거때 가서 결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하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이회창이 집권하면 남북대결이 격화되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 이회창은 부시의 ≪악의 축≫망언을 추종하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맞장구를 치는 극악한 역적이라는 것, 민주화와 반미투쟁에 나선 사람들에게 사형까지의 극형을 선고했던 그가 집권하면 무서운 법관독재가 실시될 것이라는 점들을 들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이회창일족의 친일행적과 함께 두 아들의 병역기피문제, 97대선자금횡령과 호화주택무단사용과 같은 부정비리문제들을 들면서 그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회창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한나라당내에서는 이회창을 가지고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최병렬, 이부영의원 등 여러 명이 후보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4월 5일

2 노작
• 주체사상에 대하여(10)

4 세기와더불어
• 5장 5절 새 무장력의 탄생 (1)

6 칭송
• 믿음은 가장 힘있는 교양
• 금강의 가을을 그리며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세계인민들이 높이 존경하는 위대한 영도자들이시다

7 구국의 소리
•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 구국의 소리 뉴스 – 주체91, 4월 5일
• 경찰은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 미국의 충견

10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4월 5일 보도

12 평양방송
• 가장 정확한 혁명노선과 정책을 제시

13 아리랑뉴스
•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는 상호 보완
• 특사방북 성과 컸다
• 북, 프리처드 美대사 방북권고 수용
• 보이지 않는 ≪자주≫국방부
• ≪공격 중단≫ 이스라엘 규탄집회
• 북, ≪악의축≫론 고수는 의회 중간선거용
• 제2의 상가임대차보호운동을 선포
• 발전회사, 복귀 노조원에게 ≪서약서≫강요 물의
• 남북대학생 식목일기념 공동 식수 행사

15 운동강좌
•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1)

16 조국통일3대헌장
• 통일운동의 대하 (1)

주체사상에 대하여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 주체71(1982)년 3월 31일

주체사상은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과 입장을 확립하였습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 사회역사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세계관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맑스주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 확립되었다면 주체사상에 의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시대,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사조들을 철저히 짓부수면서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인류의 전진운동을 올바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인류의 해방위업에 이바지한 주체사상의 역사적 공헌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이 출현한 후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혁명운동은 멀리 전진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혁명실천은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맞게 혁명이론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내놓음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이론을 새롭게 밝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주체시대의 혁명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올바른 기초입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이론을 전개한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이론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주체시대의 혁명운동의 요구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력에 의하여 혁명투쟁이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시대에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이론을 전개하여야 혁명운동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올바로 해명할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이론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이론을 전면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이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이론으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이론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혁명운동의 본성에 맞게 혁명이론과 전략전술을 전개하는 확고한 담보입니다.

모든 혁명운동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고 그들 자신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인 것만큼 혁명이론과 전략전술은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이익을 어떻게 옹호하는가에 따라 이론의 가치가 규정되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 전략전술의 위력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근본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옳게 발양시키는 이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을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혁명이론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선행한 혁명이론에 올바로 대할 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도 됩니다. 노동계급의 선행한 혁명이론은 오늘과 다른 시대적 조건과 과업을 전제로 하여 나왔지만 계급적 이념과 사명에 있어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이론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기성이론과 경험에 창조적으로 대하는 원칙을 제기함으로서 선행혁명이론을 우리시대의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구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그것은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계급투쟁을 부인하는 수정주의를 비롯하여 온갖 기회주의를 정확히 가려보고 극복하며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에서 계급적 원칙과 계속혁명의 정신을 확고히 고수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주체의 혁명이론은 주체시대 노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이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더불어 영원히 승리하는 불멸의 공산주의혁명이론입니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실천을 낳습니다.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운동,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천명하고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에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에 빛나게 구현되어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이며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함으로써 조선혁명은 사대와 교조로 인한 요람기의 진통에서 벗어나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간고한 투쟁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은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가장 곧바르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조선혁명은 식민지민족해방의 가장 정확한 길을 개척한 혁명이며 사회주의에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 놓은 혁명입니다. 조선혁명은 세상사람들이 ≪사회주의의 모범≫이라고 말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새생활을 창조한 혁명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생소한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혁명입니다. 주체사상이 앞길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길로 전진하여 짧은 기간에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엄연한 현실로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세기적인 변혁과 위대한 창조물들은 주체사상의 고귀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업적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는 우리시대 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혁명의 길,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혁명운동이 민족국가단위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시대는 매개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옳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와 같은 그릇된 사상의 영향이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됩니다. 주체사상은 바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길을 밝혀줌으로써 매개나라 인민들이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자기나라 실정에 맞는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자체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혁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각이한 역사적 조건과 발전단계에 있는 인민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수 있게 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길, 국제관계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공산주의운동은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없애고 자기운명의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한 매개나라 당과 인민의 자주적인 운동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그 어떤 상하관계나 주종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고 그들 사이에 지배와 예속, 명령과 복종 관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당들 사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움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국제관계발

➡

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자주성의 원칙은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담보하며 공산당, 노동당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더욱더 큰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은 신생독립국가들,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도 국제관계발전의 공인된 원칙으로, 예속과 불평등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새 세계를 창조하며 자기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불멸의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입니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앞에는 의연히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임무가 남아있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투쟁해 나가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주체사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서 과학이론사업이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선전을 앞세워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과학이론일군들은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선전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부문에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사상이론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지도적 원칙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사상이론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과 경험을 깊이 연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과학은 혁명실천에서 간절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옳은 과학이론적 해답을 주어야 합니다. 사회과학부문 일군들은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본을 두고 주체사상연구를 심화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이론적으로 올바로 해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은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토대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연구성과물로 풍부히 하여 나가야 합니다.

주체사상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기관은 주체사상교육의 전당이며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은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주체사상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학생들을 고등중학교를 나올 때에는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대학을 나올 때에는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일군으로 키워야 합니다.

특히 대학들에서 주체의 사상이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교육교양과 전문분야의 지식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옳게 결합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과학학부들에서 학생들에게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똑바로 세워주는 한편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주체의 사상이론을 깊이 소유한 전문가들을 훌륭히 양성하여야 합니다.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이론선전은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의 사상이론을 깊이 체득시키는 사업입니다.

주체사상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귀중한 사상정신적 양식입니다.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자면 누구나 다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하여야 합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주체의 사상이론을 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과학이론 일군들과 출판보도 일군들은 주체의 사상이론을 깊이있게 해설한 품위있는 책과 글들을 많이 써내어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이론분야에서 반동적 부르조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이론일군들은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적대적 사상들의 반동적 본질과 해독성을 예리하게 폭로하며 조그마한 비계급적, 비혁명적 사상요소도 우리내부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학이론일군들은 부르조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반동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온갖 반동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수고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학이론일군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모든 과학이론활동을 주체의 사상이론을 연구선전하고 옹호관철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하며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선진사상의 소유자이며 전파자인 사회과학자들과 이론일군들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나는 우리 당의 과학이론일군들이 주체사상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명심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투쟁에 훌륭히 이바지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끝)

정치사전

주체사상에 대하여 (6)

로작의 다섯째 체계 ≪주체사상의 력사적의의≫에서는 주체사상의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와 위대한 생활력을 밝혔다. 로작은 주체사상의 력사적의의는 무엇보다먼저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밝힌데 있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은 맑스주의철학에 의하여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 진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독창적인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 사회력사관을 밝힘으로써 세계관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 왔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완성하였다. 로작은 주체사상의 리론적의의는 다음으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 놓은데 있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해명할수 있게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리론으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리론으로 되게 하였다. 로작은 이 체계에서 다음으로 주체사상의 실천적의의를 밝혔다. 로작은 먼저 주체사상이 조선혁명실천에서 가져 온 변혁을 밝혔다. 주체사상이 조선혁명에 빛나게 구현되여 우리 나라는 가장 가까운 길로 전진하여 짧은 기간에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로작은 다음으로 주체사상이 세계혁명실천에 미치는 결정적영향을 밝혔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혁명의 길,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넓은 길을 열어 놓았으며 자주성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길, 국제관계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로작은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적문제들과 지도적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불멸의 총서이며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탁월한 고전적문헌이다. 로작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이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전투적기치이다. 로작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외곡하는 기회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주체의 기치 따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설수 있게 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끝)

5. 새 무장력의 탄생 (1)

2권 제5장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2. 9.18사변
3. 무장에는 무장으로
4. 혈전의 준비
5. 새 무장력의 탄생

1932년 봄은 세계를 뒤흔드는 사변들로 하여 매우 소란스러웠다. 만주대륙을 강점한 일제는 손중산의 국민혁명에 의하여 밀려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의를 내세워 괴뢰만주국을 조작해냈다. 일본의 어용선전기관들과 중국, 만주의 친일적인 출판물들은 때를 같이하여 ≪오족협화≫, ≪왕도락토≫건설을 부르짖으며 만주국을 찬양하였고 아세아와 세계의 진보적인 여론은 이를 강력히 반대배격하였다.

세계의 이목은 9.18사변의 발발원인과 그 책임을 해명할 사명을 지니고 방금 일본에 도착한 국제련맹조사단의 활동에 쏠리고 있었다.

영국 추밀원고문과 릿든경을 단장으로 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딸리아 등의 렬강대표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일본천황의 접견을 받고 수상, 륙군상, 외상까지 만난 다음 중국에 건너와 장개석, 장학량과 회견하는가하면 만주에 나타난 관동군사령관 혼죠중장도 만나고 9.18사변 발발현장에 대한 시찰도 진행하였다. 일본측과 중국측에서는 서로 릿든조사단을 자기편에 끌려고 접대, 환영 경쟁에 열을 올리었다. 조사단이 진상을 밝혀내고 국제련맹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일본이 만주에서 철병할지도 모른다는 억측이 정계, 사회계와 보도계는 물론, 정치에 민감해진 소학생들과 마실방 늙은이들의 입에서까지 오르내리었다.

그러나 안도지구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는 그런 억측이나 뜬소문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군사훈련에만 열중하였다. 소사하 부녀회원들이 매일같이 점심밥을 함지에 담아 이고 토기점골등판으로 올라왔다.

우리는 3월 중순경에 안도에서 동만의 여러 현들에 조직된 유격대소조의 지휘성원들을 위한 단기훈련을 조직하였다. 지방들에서 20명 가까운 지휘성원들이 소사하 토기점골로 모여들었다.

단기훈련은 2일간 진행되었는데 첫날에는 리론강의를 하였고 다음날에는 동작훈련을 하였다. 나는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문제를 가지고 정치학습에 출연하는 한편 유격대의 생활규범과 활동준칙에 대한 강의도 하였다. 군사훈련은 주로 박훈이 맡아 지도하였다. 우리는 그때 그 강습에서 대련동작이나 무기분해결합법과 같은 초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습격, 매복조직과 같은 전술적 문제에로 훈련을 점차 심화시켜나갔다.

안도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본부로, 중심으로 되었다. 두만강연안의 여러 현들에서 공작원들과 통신원들이 우리와의 련계를 지으려고 소사하로 자주 찾아왔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를 조직한다는 소문이 한입건너 두입건너 국내에까지 퍼져나갔다.

그 소문을 듣고 조선과 만주각지에서 20살 안팎의 열혈청년들이 사선을 헤치며 안도에 모여와 참군을 요청하였다.

변달환이 입대를 지망하는 오가자의 청년들을 8명이나 데리고 안도로 나오다가 일본군경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간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해방직후 나를 찾아왔던 변대우로인은 아들이 참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해동안 속절없는 감옥살이를 한데 대하여 몹시 아쉬워하였다.

간도 여러 현들 중에서도 특히 연길지방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많이 찾아왔다. 연길지방에는 적의 통치기관들과 폭압수단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밀정망이 발달되어 있었다. 1932년 4월초에는 라남 19사단 소속의 38려단 75련대를 기간으로 하고 포병, 공병, 통신병으로 증강된 이께다 대좌휘하의 간도림시파견대가 동만지방 토벌을 목적으로 두만강을 건너 연길을 비롯한 간도일대에 쓸어들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그 고장 지하조직에서는 참군을 요청하는 청년들을 안도로 많이 보내주었다. 조직의 추천과는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년들도 많았다.

돈화의 진한장도 호진민이라는 중국청년을 데리고 내앞에 나타났다. 호진민은 화룡에서 사범학교 교원을 하던 사람이다. 어떤 날에는 청년들이 한꺼번에 10여명씩 무리를 지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구국군이 도중에 그들을 붙잡아다가 무리로 학살하였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는 동북자위군, 반길림군, 항일구국군, 항일의용군, 산림대, 대도회, 홍창회와 같은 형형색색의 반일부대들이 많았다. 반일부대라는 것은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 항일구국의 기치를 들고 구동북군에서 떨어져나온 애국적인 군인들과 관리들 그리고 농민들로 이루어진 민족주의군대를 말한다. 이 부대들을 통틀어 구국군이라고도 불렀다.

만주지방의 반일부대 가운데서 유명한 것으로는 왕덕림, 당취오, 왕봉각, 소병문, 마점산, 정초, 리두의 부대들을 들 수 있다.

동만에서 제일 큰 반일부대는 왕덕림부대였다. 왕덕림은 한때 목룡과 수분하일대의 밀림 속에서 아무런 주의주장도 없이 ≪록림호걸≫의 토비생활로 청년시절을 보내다가 부하들을 이끌고 장작상 예하의 길림군에 편입되어 정규군의 외모를 갖춘 장교로 된 사람이다. 그는 9.18사변전까지 구길림군에서 3려단 7련대 3대대장으로 복무하였다. 민간에서는 그의 대대를 ≪구3대대≫라고 불렀다. 일본군대가 만주를 침공한 후 그의 상관이었던 려단장 길홍이 투항하여 관동군 사령관을 만났다. 그는 일본제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길림경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자기 상관의 반역행위에 분개한 왕덕림은 즉시에 반변하여 항일구국을 선언하였다. 그는 500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 중국 국민구국군을 조직한 다음 오의성을 전장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일본제국주의침략군대에 대한 항전을 개시하였다. 라자구 일대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간도지방의 적을 견제하면서 훗날 우리 유격대와도 피의 인연을 맺은 오의성, 사충항, 채세영, 공헌영은 모두 왕덕림의 충실한 부하들이었다.

남만의 산간지대들에서는 당취오의 자위군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흑룡강성 일대에서는 마점산부대가 북상하는 일본군에 저항하고 있었다. 안도의 산간오지로 밀려든 것은 오의성의 위하에 있는 우사령부대였다. 이 부대의 드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일제의 앞잡이로 보았으며 조선사람들이 만주대륙에 일제침략군을 끌어들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쐐기를 박느라고 리간질을 계속하는데다가 5.30폭동과 만보산사건에서 받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나쁜 인상이 그때까지도 중국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구국군의 완고한 상층은 조선민족과 중화민족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꼭같은 재난과 불행을 강요당하고 있는 피압박민족이며 중국사람들이 일제의 앞잡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조선사람들도 중국인민의 원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리해할 만한 정치적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적대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구국군의 상층부가 대부분 자산계급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구국군의 상층부는 조선사람은 공산당이며 공산당은 파쟁군이며 파쟁군은 일제의 앞잡이라는 제나름의 공식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조선의 청장년들을 가차없이 박해하고 학살하였다. 도시들과 벌방지대에서는 일본침략군이 살벌하게 돌아치고 일본군이 채 점령하지 못한 농촌들과 산간지대들에서는 수천수만명이나 되는 구국군들이 길목을 지키고 서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구국군의 적대행동은 청소한 우리 유격대의 존재자체를 위협하는 엄중하는 난관으로 되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물론, 산림대와 독립군까지도 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그대로 사면초가의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할 수 없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지 않고서는 대오를 확대할 수 없었고 공개적인 군사활동도 할 수 없었다.

부대는 조직했지만 합법화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모두 뒤골방에 배겨있는 신세가 되었다. 세상에 나타나야 빛을 보겠는데 나타날 수 없었다. 군복도 없이 모두 사복을 입고 남의 집 뒤골방에서 모젤이나 주무르며 이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항일을 하겠는가고 통탄만 하였다. 그것도 조선부락에나 숨어있을 뿐 다른 데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밤에만 몇사람씩 비밀리에 나 다니는 형편이었다.

초기에 우리가 유격대를 비밀유격대라고 부른 리유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그때 일본군대들 뿐 아니라 구국군과 만주군 패잔병까지도 피해다녀야 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조선의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반동분자들도 경계하면서 다니었다. 합법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공산당이라고 막 쏘고 행패질을 하는 것이어서 정말 문제거리였다. 연길, 화룡, 왕청, 훈춘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사는 집만 골라다닐 수도 없었다. 본래 어렵게 살던 사람들인데 몇십명씩 무리를 지어가서 다 털어먹고 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니 그것도 야단이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여 대낮에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군중들로부터 환영도 받고 선전도 해야 일이 되고 싸움맛도 나련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우리는 모여앉기만 하면 유격대를 어떻게 합법화하겠는가.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풀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제일 심각하게 론의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의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하는 문제였다. 구국군은 그 상층부가 자산계급출신들로 이루어져있고 자주, 자본가, 관료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군대인데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은 계급적 원칙의 포기이고 타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는 동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들은 구국군과 일시적으로

➡

무장대오를 조직하던 때 (1932년)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어도 동맹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적대적 행동에 대하여서는 실력으로 눌러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주장이었다. 우리는 구국군이 비록 여러 가지 제한성은 있어도 투쟁목적과 처지의 공통성으로부터 항일전쟁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동맹자로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 련합전선까지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상과 리념이 다른 두 무장력의 련합전선에 대한 문제는 당시까지만 하여도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론쟁을 불러일으켰다.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동만특위에서는 일찍부터 왕덕림부대에 주의를 돌리고 7-8명의 우수한 공산당원들을 파견하여 구국군과의 공작을 하게 하였다. 우리도 리광을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구국군부대들에 파견하였다. 나는 통신원들을 통하여 동산호부대에 파견된 리광이 구국군공작에 부심하고 있는 정형을 여러 번 보고받았다.

구국군의 행패가 심해지자 우리 동무들은 련합전선은 공상이니 우리도 이제는 맞불질을 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자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겨우 설복시켜놓았다. 구국군을 적으로 삼고 그들에게 1대1로 보복을 가한다는 것은 반일이라는 대의와 도리에도 맞지않고 청소한 우리 유격대를 자멸에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분별한 짓이기도 하였다. 간도는 물론, 만주전역의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이 구국군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당시 각 현에 있는 유격대라고 해야 얼마 안되었다. 한개 현에 몇십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것마저도 구국군한테 잡히기만 하면 모조리 죽는 판이니 부대를 늘일 욕심이 있어도 도무지 늘일 수가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나는 우리 유격대가 당분간 우사령부대에 들어가서 별동대로 활동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사령부대에 들어가면 구국군의 간판을 가지게 되니 피해를 입을 념려가 없고 무기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영향만 잘 주면 그들을 공산주의화하여 안전한 동맹자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동무들의 토론에 붙이였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조직의 본부가 있는 소사하 김정룡의 집에서 하루종일 회의를 하였다. 그 모임을 지금은 소사하회의라고 한다. 그 회의가 아주 격렬하였다. 구국군부대안에서 별동대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걸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목이 아프게 론쟁을 하였다. 애연가들은 물론, 담배를 피울 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마라초를 꼬나들고 쉴새없이 연기를 뿜어대는 바람에 눈이 쓰리고 숨이 막혀서 혼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결국 별동대에 관한 나의 착상은 동무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구국군과의 담판을 위하여 우사령부대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적임자로 내가 선발되었다. 동무들이 나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자청해나섰다.

당시 우리한테는 군사외교를 해본 인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를 대표로 보내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론의되었다. 대표는 선출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상대측이 접근이나 시키겠는지, 정작 담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내대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겠는지 그리고 수틀리면 우리 대표를 사살하지는 않겠는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대표로는 이 모든 정황에 능숙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강조되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 우사령과 마주앉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발해야겠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는 박훈, 김일룡, 호진민 뿐이었다. 김일룡은 나이가 나보다 10여살이 이상되는 사람이였지만 중국말을 잘 몰랐다. 그 나머지는 다 조아범처럼 학교를 갓 나온 18-20살내기들이었다.

나는 동무들한테 나를 보내줄 것을 제기하였다.

동무들은 그 제의를 반대하였다. 성주동무는 대장인데 우사령이 공산당이라고 잡아제끼면 곤란하다. 그러니 진한장이나 조아범이나 호진민같은 중국동무들가운데서 누구든지 외교에 능한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였다. 나는 동무들에게 우사령이 내가 가면 무엇때문에 죽이겠는가고 물었다. 동무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들어갔다고 ≪꼬리방즈≫하고 죽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데 너라고 못죽일게 뭔가, 왕청 관부대사건때문에 요즈음은 구국군이 조선청년들이라면 더 눈을 밝힌다는데 너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관부대사건이란 왕청에 있는 리광동무의 비밀유격대가 관부대란 반일부대의 무장을 해제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하여 유격대와 구국군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유격대의 활동에 더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왕청에서 온 통신원은 자기네 고장에서 관부대사건이 있을 다음 그 보복으로 여러 명의 유격대원들이 구국군에 붙잡혀 총살당하였다고 하였다. 김책동무가 북만에서 산림대에 붙잡혀 죽을 뻔한 것도 이와 비슷한 시기였다. 나는 그냥 내가 가야한다고 고집하였다. 내가 그렇게 고집한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외교술을 가지고 있거나 우사령을 굽혀낼 특별한 처방이라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유격대의 존망이 우사령과의 담판에 달려있고 우리의 성패도 그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는데 달려있다는 것과 구국군을 동맹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동만땅에서 유격전은 고사하고 문전출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되고 있었기 대문이었다. 그리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무장투쟁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조선의 남아로서 살 보람도 없고 살아야 할 리유도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혁명을 하지 못한다. 내가 중국말을 잘하고 청년운동시기에 풍랑도 여러차례 겪어본 것만큼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사령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가야 한다고 동무들을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박훈, 진한장, 호진민 그밖의 중국청년 한명을 더 데리고 우사령을 찾아 떠났다. 아무런 신변안전 담보도 없는 모험의 길이었다. 상대측의 사령부는 량강구에 자리잡고 있었다. 구국군이 우리더러 어디에서 왔는가고 물으면 우리는 안도에서 왔다고 하지 말고 길림에서 왔다고 대답하기로 약속하였다. 구국군들 앞에서 유격대의 주둔지역인 동만의 지명을 대는 것은 재미가 없었다.

우리는 대사하로 가는 길에서 우사령부대와 맞닥들였다. 수백명의 대오가 ≪삼국지≫에 나오듯이 ≪우사령≫이라고 쓴 기발을 날리며 위풍당당하게 행군해오고 있었다. 우사령부대가 남호두에서 일본군대를 소탕하고 기관총까지 로획한 후여서 그들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날 때였다.

≪피하지 않소?≫

호진민이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아니, 맞받아나가자구!≫하면서 그냥 앞으로 걸어나갔다. 나머지 네 사람도 나의 량옆에 가지런히 서서 보조를 맞추어 걸어나갔다. 구국군은 우리를 보자 ≪꼬리빵즈, 오라!≫하고 호령하였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도 당신들처럼 항일을 하는데 왜 붙잡으려하는가고 중국말로 항의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조선사람이 아닌가고 되물었다. 나는 떳떳하게 조선사람이라고 대답한 다음 진한장, 호진민 동무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중국사람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급히 상의할 문제가 있어 당신네 사령한테로 찾아가는 길이요. 우리를 사령한테로 안내하시오!≫

내가 이렇게 위엄을 풍기며 요구하자 그들은 좀 수그러들면서 자기네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 얼마쯤 갔을 때 구동북군방교차림의 지휘관이 점심식사지령을 내리고 우리를 어떤 농가에 구금하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길림 육문중학교 시절의 나의 스승이었던 류본초선생이 그 집으로 들어왔다. 류본초선생은 육문중학교에서 얼마동안 한문을 가르친 적이 있고 그 후 문광중학교와 돈화중학교에서도 교편을 잡을 사람이였다. 그는 상월선생과도 친교가 깊었고 진한장과도 잘 아는 사이었다. 선생이 호인이고 지식이 해박한데다 좋은 책들도 많이 알선해주고 훌륭한 시들을 지어 학생들앞에서 즐겨 읊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척 그를 따르고 존경하였다. 나와 진한장은 류본초선생을 알아본 순간 탄성을 내지르며 선생의 앞으로 뛰어갔다. 역경에 처했을 때 선생을 만나니 더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류본초선생도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에게 연방 질문을 던지였다. 너 김성주, 어째서 여기 있느냐? 어떻게 되어 여기에 왔느냐? 어데로 가다가 이렇게 붙잡혔느냐? 내가 사연을 간단히 설명하자 선생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나도 여기서 점심을 함께 먹겠다. 잘 차려오라.≫하고 큰 소리로 지시하였다. 알고보니 그는 일본군대가 만주로 쳐들어오자 교단을 떠나 우사령부대에 들어와 참모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류본초선생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어 군복을 입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자니 속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이 가서 자기네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우리가 그 의견을 동의하고나서 우사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그는 량강구에 있던 우사령이 지금 안동성시에 들어가니 자기와 함께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선생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들도 조선사람부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놈들에 대한 원한이야 중국사람들보다 조선사람들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일부대에서는 왜 조선사람이 항일을 못하게 자꾸 행패를 부리고 잡아죽입니까?≫

≪아, 그러게 말야. 나는 그러지 말라고 자꾸 말리는데두 그 모양이거든. 공산당이 뭔지두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것들이. 공산당이 일제를 반대하는데 무엇이 나쁜가?≫

류본초선생도 분개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제는 됐다. 살길이 나졌다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박훈을 소사하에 보내어 그곳 동무들에게 우리가 무사하다는 것과 우사령부대의 참모장이 우리를 진심으로 후원해주었기 때문에 유격대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우리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류본초선생을 따라 안동성시로 떠났다. 류본초에게는 전용군마가 한필 있었다. 우리가 선생에게 말을 타라고 권고하였으나 그는 ≪너희들이 걸어가는데 내가 말을 타구 가다니 될말이냐.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성시에 가닿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줄곧 도보행군을 하였다. (내일 계속)

량강구

일화

믿음은 가장 힘있는 교양

1978년 여름 어느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시어 어느 한 작가에 대해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로 말하면 재간있는 작가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심하고 술을 자주 마시어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군 하였으며 이 시기 어느 한 제강소에 내려가 현지체험을 하면서 혁명화를 하는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일은 잘하는데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술먹는 버릇을 떼지 못하여 노동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가 어린 나이에 의용군에 입대하여 잘 싸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드리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심중한 안색으로 하나의 문건을 넘겨주시였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법 규범과 질서를 어긴 자료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그가 어린 나이에 혁명을 하겠다고 의용군에 입대하여 잘 싸웠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료를 이해할 수 없다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 남조선에서 못살고 천대받던 그에게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안겨주었고 대학공부까지 시켜주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영예로운 작가대열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열의를 믿고 조선노동당원의 영예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령님과 당의 은덕으로 사람답게 살게 되고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게 된 그가 이 은덕을 고맙게 생각하면 생각했지 무엇때문에 우리 당에 반감을 가지고 나쁜짓을 하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그의 창작생활과정을 놓고보더라도 나쁜짓을 하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에게 사실을 구체적으로 요해할데 대한 과제를 주시였습니다.

일꾼들은 장군님의 믿음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그가 소속되어 생활하고 있는 당세포조직에도 들어가고 그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과도 만나 상세히 요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그들은 제기된 비행자료가 왜곡되고 과장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결함은 역시 자유주의와 술풍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장군님께 그대로 보고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을 현지에 내려보내신 후 그 작가가 쓴 작품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작가의 사상정신상태를 파악하셨고 그에 대한 믿음을 깊이 간직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보고하는 일꾼에게 이러한 사연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하시였습니다.

≪나는 좋은 작품을 쓴 그 작가를 믿습니다. ... 그는 우리와 한대오에 서있는 혁명동지입니다. 결함과 과오는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허물처럼 함께 가슴아파하며 고쳐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혁명을 해나가야 할 귀중한 혁명동지란 말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경력에 대하여 그리고 당과 국가가 그를 공들여 키워온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범한 과오를 자신의 허물처럼 가슴아파하며 일깨워주고 도와줄 대신에 그를 막다른 골목에 밀어놓으려 한 일부 편협한 사람들의 그릇된 처사를 지탄하시였습니다.

계속하여 그분께서는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다루는 일꾼들이 동지를 사랑하고 사람을 믿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무서운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혁명동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믿어주면서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당일꾼들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의 숭고한 임무이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라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장군님의 이 크나큰 믿음 속에서 그 작가는 자신의 결함을 깊이 깨닫고 정신수양을 쌓아 민중의 사랑을 받는 이름있는 작가로 자라났습니다.

송시

금강의 가을을 그리며

남산에도, 속리산에도 곱게 물들은 단풍을 보며
저도 몰래 눈앞에 떠오르는 절경
단풍이 유명하여 풍악산으로 부르는
가을의 금강이여

봄내 여름내 새소리, 바람소리에도 친숙해져
소리쳐 부르면 대답할 듯 싶은 명산
너의 가을에 흠뻑 취하고 싶어
소중한 추억들을 단풍잎에 물들여보네

꽃피는 봄날에 열린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행진
김정숙휴양소 뒷뜰에도
지금쯤은 단풍 붉게 타겠지

신록이 무르녹는 여름에 열린 6.15민족통일대토론회
그날에 남북대표들도 손잡고 올랐던
잊지 못할 구룡연등반길
통일의 노래 울려 퍼지던 골과 골, 봉과 봉마다에도
단풍은 빨갛게 물들었겠지

구면 친구마냥 얼싸안으며 남북의 농민대표 모여들던 곳
대지를 가꾸던 그 마음으로
통일의 화원을 가꾸자 맹세 다지던 그곳들에도
단풍이 한창이겠지

단풍에도 올해 금강의 단풍은 유다르리라
불길처럼 타오르는 통일열망
남북의 마음과 마음되어 그대로 붉게 물든 단풍
용암처럼 끓는 통일의 의지
남북누리에 펼쳐 가는 빨간 단풍

봄, 여름 남북화합의 결의들을
세계명승 금강산에 마련하시며
통일의 꿈나무 자래워주신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뜻으로 불타는 단풍이여

통일강성대국의 풍만한 가을을
겨레의 가슴 가슴마다에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주는 가을의 금강
아! 보고싶은 통일의 금강이여!

흠모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세계인민들이 높이 존경하는 위대한 영도자들이시다

세네갈사회당과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의 정치국 위원들이 최근 이 나라들을 방문한 조선노동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진행하였다.

석상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께서 영도하시는 조선노동당과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세네갈사회당의 영예이다. 앞으로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세네갈사회당 정치국 위원이며 당대외관계전국비서 겸 대통령부 사무국장인 따노르 디앙)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사회주의는 인류가 지향하는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노동당이 사회주의를 계속 굳건히 견지해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주목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조선노동당의 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한다.≫(세네갈사회당 정치국 위원이며 국회제1부의장인 인라민 쟈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세계 인민들이 높이 존경하는 위대한 영도자들이시다. 우리는 두 나라 당들 사이의 친선관계가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 두 당학교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밀접히 가질 것을 희망한다.≫(세네갈사회당 정치국 위원인 당학교 교장)

≪현 국제정세하에서 조선만이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선노동당이 사회주의를 굳건히 견지하면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세네갈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고 있다.≫(세네갈사회당 정치국 위원인 전국근로자연맹 총서기)

≪기니비사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은 조선노동당과 친선협조관계를 좋게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 우리 당은 조선이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당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노동당의 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 당은 언제나 조선노동당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 것이다.≫(기니비사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정치국 위원인 당국제비서)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회창은 각계 민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해 사람들의 분격을 자아냈습니다.

이회창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정권을 악랄하게 비방하던 끝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큰 일이나 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회창의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는 그가 정계에서 즉시 퇴진하라는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회창의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친일파의 자식으로 살아오면서 친일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법관으로 재직하던 기간 ≪민족일보≫ 사장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자 15명에게 극형과 징형을 언도한 극악한 살인자였습니다.

국민들이 이회창의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한 그가 반민족반통일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은 4.8합의서가 발표될 때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어올 것이 하나도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시비질했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됐을 때에도 앞장에 서서 비방하면서 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할 때에도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하면서 여당을 공격하고 이북을 비난하는데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이회창의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반대하는 이유의 다른 하나는 그가 친미친일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특등주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에 널리 폭로된 바와 같이 이회창이 미국에 갔을 때 민족적 자존심도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미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아부아첨하면서 호전광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지지하는 등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부채질하는 행동을 서슴지않고 자행했습니다. 이회창이 일본에 갔을 때에도 부시의 ≪악의 축≫망발이 이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경고였다느니 북이 신뢰성이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북을 비난하고 일본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는 친미친일사대매국노가 적지 않았지만 이회창과 같이 그렇게 너절하고 누추하게 행동한 자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민족, 반통일, 친미친일사대매국노가 대통령후보 경선출마에 나섰으니 이거야말로 우리 민중에 대한 우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통일이 요원해진다며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포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건 결코 우연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악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선후보여론조사에서 이회창이 민주당후보보다 지지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 사실은 이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대세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포기하고 즉시 정계에서 퇴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과 자신을 위해서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6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4월 5일

김정일장군님을 흠모
연예인 최영미

서울에 사는 연예인 최영미씨가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했습니다.

그는 얼마전 동료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제20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된다고 한다.

해마다 열리는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은 피부와 언어가 다른 세계의 수많은 연예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의 위인상을 노래와 춤으로 칭송하는 세계적인 축제이다.

이 환희로운 축제에 우리 이남 연예인들도 참가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면서 가수 김연자씨가 제19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해서 공연한 장면, 그녀가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뵙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녹화물을 보여준 다음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김정일**영수님께서 김연자씨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면볼수록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일**영수님은 참으로 소탈하시고 자애로운 분이시다.

나도 영수님을 모시고 평양무대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불러봤으면 원이 없겠다. 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

군당국의 전투기도입규탄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는 2일 전투기도입과 관련한 군당국의 친미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미보잉사의 ≪F-15K≫를 기종으로 확정한 사실은 애당초 이 사업이 미군수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온 민족이 통일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때에 북침전쟁책동의 일환인 무기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미국의 압력에 굴종해 고물비행기를 무조건 사들이려고 하는 군부의 비굴한 태도는 전체 민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군부가 민족의 자존과 민중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이 이러한 사대매국적 행위를 일삼는데 앞장선다는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군당국이 사대매국적인 ≪F-15K≫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시대착오적인 차세대전투기도입을 즉시 철회할 것과 나라와 민족의 자존을 뒤로한채 미국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꼭두각시 국방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규탄 공동성명
부산지역 8개 단체

미군철수국민운동부산지역본부와 부경총련, 사회당 부산시지부 등 8개 단체들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부산미군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다면서 기만적인 이전놀음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지금까지 전개해온 투쟁목적은 미군부대를 해산하고 기지를 반환하라는 것이었지 옮기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미군주둔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유발의 근본원인이고 평화정착의 장애물이며 미군기지는 범죄의 온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미군놈들이 새롭게 땅을 빼앗아가면서 이전이니 통합이니 하고 떠드는 것은 한국을 영구지배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지금은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켜야 할 때이지 기지 이전놀음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평미군기지이전 관련한 성명
인천지역 30여개 단체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30여개 단체들이 부평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부평미군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데 따른 막대한 부담을 국방부가 부담하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도 위반된다면서 이전비용은 마땅히 미군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이번에 반환되는 부평미군기지를 비롯한 군사기지들은 군사기지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된 것으로써 이미 반환돼야 했었다며 그런데 이런 땅들을 반환받는 대신 한국정부는 154만평의 땅을 미군측에 추가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우리 땅을 새롭게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군당국과 국방부는 부평미군기지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액에 달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제공반대, 추가적인 땅제공반대투쟁에 나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두-한나≫ 3월호 발행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잡지 ≪백두-한나≫ 3월호를 발행했습니다.

잡지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재중조선인총연합회에서 그분께 드린 축하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뜻깊게 맞으며 진행한 재중조선인들의 다양한 경축행사소식을 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잡지는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에 대해 쓴 글과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양영동의장이 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또한 3.8국제부인의 날을 맞는 여성들의 자긍심에 대해서 쓴 총연합회 여성부 최**부장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잡지는 일련의 조국소식을 실었으며 방북했던 동포들이 애국사업에 모든 것을 다바쳐 나갈 것을 다짐해 쓴 글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결성 11돌이 되는 것과 관련한 글을 편집했습니다.

잡지는 이밖에도 미국의 전쟁책동을 규탄하는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성명과 산하단체 일군들이 발표한 담화들을 실었습니다.

경찰은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의 반북책동을 분쇄하는 건 한반도의 평화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래서 각계 민중 모두가 반미투쟁에 나서고 있는거죠.

그런데 이 땅의 경찰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노동자 조영모씨의 글 ≪경찰은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북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이 알려지자 우리 민중의 반미반전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미대사관 근처에서 있은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은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의 실현을 위해 우리 민중을 희생양으로 이 땅의 핵참화를 덮씌우려는 것이라면서 이를 단호히 반대배격했다.

이것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날 경찰은 수백명을 동원해 폭력을 휘둘러 여러명의 부상자까지 내면서 집회참가자들을 강제해산시켰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부시의 방한기간에도 우리 민중을 향해 야만적인 폭력행위를 자행했다.

2월 20일 부시방한반대범국민대회장에 불의에 뛰어든 전투경찰은 그야말로 유혈적인 폭행과 탄압을 가했다.

이날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우리 민중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 땅에 날아든 부시의 검은 속셈을 까발리고 성조기를 불태우려는 순간에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달려들어 수십명을 쓰러뜨렸다. 경찰은 피흘리며 쓰러지는 집회참가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던 내외방송기자들에게도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폭행하고 심지어 취재장비들을 파괴하는 난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던 시민들도 무지막지한 경찰의 곤봉세례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이날 경찰의 야수적인 탄압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이김현숙씨와 전교조 성원 김은숙씨 등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8내지 10군데나 상처를 입었다. 한 농민은 얼굴이 형체를 가려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인근 병원에 실려갔다. 그들이 정녕 이 땅의 경찰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금 이 땅은 미국의 핵전쟁책동으로 해서 민족공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경찰이라고해서 핵전쟁의 참화가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그가 누구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무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가공할 사태앞에서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발벗고 나서서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국민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반미반전투쟁에 나선 사람들에게 그토록 야만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에겐 한조각의 민족적 양심이라도 있는가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외세의 앞잡이가 되어 어떻게 한핏줄을 나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형님이나 누이, 동생들과 다름없는 그들에게 그처럼 야수적으로 달려들어 유혈이 낭자하게 만드는 짓을 거림낌없이 자행할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은 각성해야 한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공공연히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언하고 있어 그들이 몰아오는 핵참화의 먹구름이 시시각각으로 이 땅에 더욱 무겁게 드리워지는 것을 보라.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한국민 모두를 죽이려드는 무서운 미국의 핵전쟁에서는 결코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민족의 피가 끓고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반미반전투쟁에 용감하게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받들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은 최대의 애국이다. 애국활동을 탄압하는 건 시대와 민의에 역행하는 죄악이고 역사와 민족앞에 천추만대 씻어도 다 못 씻을 대죄이다.

경찰은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 현실을 바로 보고 반미반전투쟁에 나선 애국민중의 편에 서야 할 것이다.

옳은 얘기죠.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 드는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결사적으로 막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경찰은 제정신을 가지고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반미반전투쟁에 우리 민중과 어깨겯고 나가야 할겁니다.

좋은 글 보내주신 조영모씨께 감사하구요 앞으로 더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3일~5일

미국의 충견

이 시간에는 통일운동가 김지호씨의 글 ≪미국의 충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시가 한국을 행각한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일이 흘렀지만 그때의 여운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때 부시의 충견노릇을 한 우익보수세력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의 한국행각시 그들은 부시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시방한환영집회라는 것을 벌여놓았다. 그리고 환영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참석자들에게 몇푼 안되는 돈을 끼워주었고 점심 한끼분에 해당한 몇푼의 돈을 받기 위해 곡기없는 인간들이 그앞에 줄지어 서있었다. 돈을 받은 자들은 제대로 받았는지 세어보면서 확인하는 추태를 부렸다. 돈을 주는 놈이나 그것을 받아 세어보는 놈팽이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꼴불견이었다. 심지어 이날 환영집회가 끝날 무렵에는 참석자명단을 작성해 제출하고 ≪돈을 타시오≫라는 방송까지 불어댔은즉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가 황금만능에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지만 우익보수세력들이 저들의 생존유지를 위해 돈을 뿌려가면서까지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는 개탄을 넘어 분격을 금할 수 없다.

부시는 환영할 인물이 아니라 배척, 규탄할 인물이다. 부시는 이 땅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고 나아가서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고 책동하는 호전광이다. 하기에 부시의 한국행각을 온 국민이 반대했다.

그런데 유독 양키침략자들을 상전으로 섬기는 친미매국세력만이 돈을 뿌려가며 부시환영집회까지 벌여놓았으니 세상에 이런 쓸개빠진 얼간이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미국에 명줄을 걸고 나라와 민족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미국의 충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극악한 민족반역행위이다.

각계 민중은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일삼으며 우리 민족에게 더 큰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려는 친미매국세력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여야 할 것이다.

글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5일~6일

조선중앙통신

주체91(2002)년 4월 5일

김련자일행 만남 장철위원장

장철위원장이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을 만났다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조직위원회 장철위원장은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을 만나 동포애의 정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축전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문화성 송석환부상, 평양시인민위원회 조영화부위원장이 참가하였다.

인민무력부 발표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그이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부 발표회가 4일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발표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과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박재경대장이 출연하였다.

출연자들은 **김일성**주석께서 80여성상의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로고와 끝 없는 헌신으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고귀한 경험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환경에 구현하시여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당의 군사로선으로 제시하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 국가적방위체계를 확립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국로동자, 사무원 가족예술소조경연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전국로동자, 사무원가족예술소조경연이 3일과 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경연참가자들은 현실속에서 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준비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주석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송시와 합창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시와 노래 ≪수령님 만고풍상 못잊습니다≫, 합창 ≪태양절 봄명절≫ 등 종목들에서 열렬히 칭송하였다.

그들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설화이야기와 노래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 제창이야기 ≪원군의 길에 꽃 핀 자랑≫ 등의 종목들에 담았다.

평양－하바롭스크 정기항로 개설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정부사이의 항공로에 관한 협정에 따라 평양－하바롭스크 정기항로가 개설되였다.

정기항로의 비행기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9시 50분에 평양을 출발하여 하바롭스크에 12시(현지시간으로 14시)에 도착하였다가 14시 (현지시간으로 16시)에 그곳을 출발하여 16시 10분에 평양에 도착하게 된다.

정기항로의 첫 려객기가 5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하바롭스크 정기항로의 개설은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 조로친선관계발전에 기여하며 려객들의 래왕을 도모하게 될것이다.

천도교창도 142돐 천일기념식 진행

천도교창도 142돐 ≪천일기념식≫이 5일 천도교회중앙교당에서 진행되였다.

기념식에는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류미영위원장, 오익제고문, 중앙지도위원회 교직자들, 평양시안의 천도교인들이 참가하였다.

천도교례식에 따라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류미영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1860년 4월 5일 1세교조 최제우에 의한 천도교의 창도경위와 선렬동덕들이 벌려온 애국애족적인 활동들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그는 또한 조국이 광복된후 새조선 건설과 조국해방전쟁 그리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발휘한 천도교동덕들의 투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 강성대국건설과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천도교동덕들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예술영화 ≪우물집 녀인≫이 나왔다

최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예술영화 ≪우물집녀인≫을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는 황해남도 어느 농촌마을의 한 녀인이 걸어 온 인생행로를 통하여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리고 미제야말로 조선 인민이 겪는 모든 재난과 불행의 화근이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 순녀는 남편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강요와 회유기만에 의하여 남조선으로 갔지만 우리 당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 준다고 하는 세포위원장의 말에서 힘을 얻고 성실하게 일한다.

그러나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그는 반동들의 책동으로 하여 마음속 고충을 겪는다.

이러한 때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리에 오시여 순녀를 비롯하여 마음속 고충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앞으로 일을 잘하여 당원도 되고 영웅도 되며 대의원도 되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시였다.

그후 순녀는 성실하게 일하여 인민주권기관의 대의원이 되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보살피심속에 더욱 성장하게 된다.

영화는 이러한 예술적화폭들을 통하여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천만사람 모두를 차별없이 따뜻이 안아 주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며 광폭정치라는것을 감동 깊게 보여 주고 있다.

평양미술축전이 진행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평양미술축전이 진행되게 된다.

이번 평양미술축전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념원을 반영한 다양한 미술작품들로 성황을 이루게 될 뜻 깊은 미술축전이다.

축전은 국가미술전람회, 신인미술전람회, 산업미술전람회, 청소년, 아동미술전람회, 조선민족옷전시회, 기념품전시회, 콤퓨터미술경연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축전장들에는 국보적가치가 있는 미술작품들과 세계 여러 나라 미술가들, 해외동포들이 창작하여 보내여 온 미술작품들도 전시되게 된다.

축전기간에 ≪현시대와 민족미술발전에 관한 미학토론회≫가 진행되며 우리 나라 미술가들과 외국의 미술가들, 해외동포미술가들이 혁명사적지와 명승지들에서 공동으로 현지습작한 작품들로 습작전시회도 있게 된다.

30만년전의 인류화석 발굴

최근 조선에서 30만년전의 인류화석을 발굴고증하였다.

화석이 발굴된 곳은 조선의 북

미제를 조선인민의 백년숙적, 철천지원쑤로 단죄

≪로동신문≫ 5일부는 미국은 세계제패의 야망밑에 조선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흉악한 침략자이며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민족의 자주권확립과 통일적발전의 길을 가로 막고 반세기이상이나 민족을 불행과 고통에 몸부림치게 한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미제가 조선인민에게 민족분렬을 강요하고 민족의 통일위업실현을 한사코 가로 막아 나서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민족분렬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한것도 미국이고 남조선분렬주의세력을 민족반역에로 추동한 배후세력도 미국이다.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통일운동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요구에 맞는 현실적이며 정당한 제안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의 제안과 노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조국통일이 이룩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때문이다.

미국은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여 좋게 발전하던 북남화해과정을 차단하고 정세를 대결시대로 되돌려 세우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 있다.

론설은 미국이 남조선을 침략적군사기지화하고 인민들을 총칼폭력의 노예로 만든 범죄는 현대력사에서 최악의것으로서 민족배타적침략과 테로를 생존방식으로 하는 미제국주의의 강도성과 야만성에 대한 산 증거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미제가 우리의 사회주의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광분해 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미제의 조선전쟁은 인류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살륙과 파괴의 극치였다고 하면서 론설은 미제에 대한 원한은 아직도 조선민족의 가슴속에 복수의 피가 끓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부쉬가 우리의 체제까지 걸고 들며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서 명백한바와 같이 미국의 우리에 대한 압살기도는 한계를 넘어 서고 있다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론설은 미제는 자기의 침략적리해관계와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전체 조선민족의 백년숙적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

동부 함경북도 화대군 석성리이다.

화산용암속에 묻혀 있던 뼈를 감정한데 의하면 어른(녀성), 미성년, 어린애였다.

고고학자들은 어머니가 두 아이와 함께 재난을 당하여 용암속에 묻힌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인류화석을 싸고 있던 용암을 측정한 결과 화석의 절대년대가 약 30만년전으로 고증되였다.

그리고 현지조사과정을 통하여 유적일대에서 5개의 화산분화구를 발견하였다.

또한 세 사람을 용암속에 몰아 넣은 화산분출이 지질학적 제4기 최신세 중부(약 70만년~10만년전)에 있었다는것을 해명하였다.

인류화석의 절대년대는 유적의 지질학적상대년대와 일치하다.

고고학자들은 이 인류화석을 ≪화대사람≫으로 이름 지었다.

전문가들은 ≪화대사람≫을 이른시기의 고인으로 보고 있다.

≪아리랑≫에 커다란 감동
싱가포르

조선의 5월1일경기장에서 종합연습단계에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일부 장면들을 본 싱가포르≪아리랑≫관광고찰단 성원들이 커다란 감동을 표시하고 있다.

고찰단단장인 림 난씨는 자기는 여러 나라들에 가보았고 공연도 수많이 보았지만 그처럼 규모가 방대하고 형상수준이 대단히 높은 공연은 조선에서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이 희한한 작품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하였다.

싱가포르 코먼웰스려행사 직원 로에 쌀리는 조선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하여 말로만 들어 오다가 실지 와서 보니 너무도 황홀하여 흥분된 심정을 몇마디 말로 다 표현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싱가포르 코먼웰스려행사 경리 얀 셜리는 작품의 매 장면장면들은 감동없이는 볼수 없는것들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조선에 와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본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태양절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토론회

태양절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민주꽁고, 뻬루에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은 토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자주화를 위한 위업에 실로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정치가로 칭송받고 계신다고 강조하였다.

뻬루 **김일성**주의연구소조 위원장은 **김일성**주석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에게 참다운 삶과 행복을 꽃 피워 주시고 특출한 인품으로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위인이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조선인민군이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회고록 토론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항일혁명편 3권에 대한 토론회가 3월 30일 로므니아근로자협회에서 진행되였다.

협회위원장은 토론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계심으로하여 빛나게 계승완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그이의 선군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한편 3월 7일 민주꽁고청년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는 회고록 항일혁명편 5권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소조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김일성**주석은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랍치≫문제를 가지고 법석 고아 대는 일본반동언론들을 비난

≪로동신문≫ 5일부는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가 발표된 이후 허튼 소리들을 내돌리고 있는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여론에 대한 기만, 우롱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못된 언론들은 우리가 그 무슨 ≪고립으로부터 벗어 나기 위해 전술을 쓴≫다느니, 누구의 ≪압력을 받고 수그러 들었다≫느니 하면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우리의 ≪랍치≫문제를 가지고 법석 고아 대고 있다.

일본의 반동언론들이 입을 모아 우리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너무도 뻔하다고 하면서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것은 조일관계에서 중핵적인 문제인 일본의 과거죄행청산을 회피하는데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조일관계에서는 일본의 과거죄행청산이 기본핵이며 이 문제가 풀리기전에 아무것도 기대할것이 없다.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일본의 못된 언론들의 잡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 대에 일본의 과거죄행의 피값을 기어이 받아 내고야 말것이라는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건히 가다듬게 하고 있다.

일본의 언론들은 공정성을 잃고 우리에 대한 여론을 오도하고 일본의 과거죄행청산을 훼방하는 그릇된 행동을 그만두는것이 좋을것이다.

부쉬의 ≪악의 축≫ 망언규탄
에스빠냐인사

조선을 방문한 에스빠냐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는 부쉬가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터무니 없는 악담을 늘어 놓은것을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민족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거나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조선인민에게는 그 누구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무적의 힘이 있다.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회주의의 불패의 보루로 굳건히 다져나가시는 천출명장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고 그이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조선인민의 배심은 언제나 든든하다.

조선통일을 방해하고 전쟁을 추구하는 미국의 책동은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부쉬가 자기의 망발에 대하여 즉시 사죄하여야 하며 6.15북남공동선언리행을 가로 막는 행위를 걷어 치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언제나 평화와 정의,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다.

6.15선언지지, 미군철수요구 국제적서명운동진행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였다.

끼르기즈스딴에서는 3월 16일과 18일에 끼르기즈스딴공산당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8, 000명의 당원들을 대표하여, 끼르기즈스딴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인 ≪스뜨로이메하니자찌야≫주식회사 사장이 120명의 소조성원들과 회사원들을 대표하여, 끼르기즈스딴대외친선협조협회련맹 위원장인 끼르기즈스딴 아. 말디바예브명칭 민족아까데미야 가극 및 발레극장 총지배인이 3, 000여명의 련맹성원들과 예술인들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각각 수표하였다.

베닌에서는 3월 25일 베닌 **김정일**장군만세친목회 위원장인 베닌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이 9, 000명의 산하 성원들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한편 3월 24일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 대외관계부 지도성원들도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 평양 도착

김일성주석과 일화(26)

주체78(1989)년 4월 어느날 **김일성**주석께서 사업하시던 금수산의사당정원의 소나무가지에 흰까치 두마리가 날아 와 앉았다. 조선에서 500여년만에 처음 보는 희한한 광경이였다.

그런데 한 일군이 촬영기를 가지고 나오는 사이 흰까치들은 날아가 버렸다. 아쉬워하는 일군들에게 주석께서는 이제 틀림없이 또 날아 올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예언대로 이틀후 오후 금수산의사당정원에 흰까치들이 다시 날아왔다. 그것들은 촬영기렌즈속에 찍혀 져 온 나라 인민들이 볼수 있게 되였다.

어느해 봄날 저녁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시 교외의 어느 한 농촌마을을 찾으시였다.

주석께서는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 온 녀성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고 있는것을 보시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리시며 농장일군들에게 마을에 수도를 꼭 놓아 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다시 농장마을을 찾아 주신 그이께서는 아직까지 샘줄기를 찾지 못해 수도를 놓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료해하시고 함께 찾아 보자고 하시며 마을주변의 지형을 살펴 보신 후 농장일군들을 데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골짜기 어귀에 이르시였다. 그리고 주변 지세를 살펴 보시다가 한 지점을 가리키시며 그곳을 파보라고 하시였다. 농장원들이 그곳을 파헤치니 신기하게도 샘줄기가 터져나왔다. 그리하여 이 마을사람들은 물고생을 하지 않게 되였다.

주체70(1981)년 5월 어느날 **김일성**주석께서는 단 한번의 배길로 서해갑문건설에서 난문제로 제기되고 있던 위치문제를 확정해 주시였다.

전문가들은 맑은 바다물과 퇴적물로 하여 흐려 있는 대동강물사이의 계선이 마치 자를 대고 긋기나 한것처럼 확연한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바다밑의 지질조건이 좋은것은 물론이고 바다 한 가운데 피도가 버티고 있기때문에 방대한 량으로 흘러 내리는 대동강물을 막을 때에도 그 섬을 지탱점으로 하여 공사를 쉽게 할수 있었다. 바로 자리에 서해갑문이 5년동안에 완공되였다.

가장 정확한 혁명노선과 정책을 제시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제5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5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까지 우리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위인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원불멸할 사상이론적 업적중에서 가장 정확한 혁명노선과 정책을 제시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의 영도자의 사상이론적 업적의 위대성은 그가 제시하는 혁명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에 의해서 평가되게 됩니다.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올바른 노선과 정책을 제시해주는 영도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걸출한 사상이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볼때 반인민적 통치자는 더 말할 것 없고 인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영도자의 경우에도 아무런 실책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바랄 수 없는 일로 되여왔습니다. 몇 해, 지어 몇 달밖에 안되는 짧은 집권기간에도 실책을 범하는 것이 정치가들의 예상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은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이며 영활한 노선과 정책으로 근 70성상, 단 한번의 착오나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오신 역사에 없는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사상이론 활동을 벌려 오시면서 혁명 발전의 매시기, 매단계 마다 가장 정확한 혁명노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여 혁명을 그 어떤 방향상 탈선이나 편차도 없이 승리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노선과 정책을 언제나 우리 인민의 이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세워나가심으로써 단 한번의 노선상 착오나 편향도 없이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근 70성상 단 한번의 노선상 착오나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영도해 오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혁명 노선과 정책은 명실공히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 행동의 지침을 제시하는 혁명의 지령입니다. 그런 것만큼 그것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것으로 되자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익을 구현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에 의거하는 인민적인 노선과 정책으로 되어야하며 자기 나라 혁명과 역사적 조건을 반영하고 자체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한 자주적인 노선과 정책으로 되야합니다. 특히 혁명노선과 정책은 사람들의 사상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는 사상위주의 노선과 정책으로 될 때 위력하고 동원적인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혁명노선과 정책 작성에서 이러한 원칙적 요구를 구현하지 않을 때 혁명과 건설에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빚어내는가 하는 것은 이미 이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를 하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사회주의 좌절의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언제나 조선혁명을 중심에 놓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해서 모든 혁명노선과 정책을 작성 제시하심으로써 정확성과 과학성이 확고히 담보된 노선과 정책으로 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혁명노선과 정책에는 자주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당면한 요구 뿐 아니라 전망적 요구가 다 담겨지고 그 수행의 구체적 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여 있으며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조건 뿐 아니라 혁명의 발전법칙이 정확히 구현되여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세상 만사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시키는 방법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사상론의 원리가 관통되여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혁명노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이익에도 맞고 혁명의 이치에도 맞으며 나라의 주객관적 조건에도 맞는 완전무결한 노선과 정책으로 될 수 있었으며 그 어느 것이나 다 인민들 자신의 것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혁명노선과 정책이 한치의 편차도 없이 정확하고 과학적인 것으로 되게 한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인민대중 속에 계시면서 노선과 정책을 작성, 제시하신데 있습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은 혁명의 직접적 담당자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는 혁명에서 해결해야 할 기본 과업이며 또 나라의 구체적 현실은 노선과 정책 작성의 터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해서 노선과 정책을 작성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과 만나 담화도 하시고 그들의 의견과 소망을 들으시면서 그 속에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셨으며 그것을 종합일반화해서 투쟁과업과 방도를 구상하시고 무르익히시여 노선과 정책으로 정식화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수억만리 현지지도의 전 노정은 능숙한 영도예술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신 혁명적 영도실천의 노정인 동시에 인민대중의 염원과 의사,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깊이 요해하고 그것을 혁명노선과 정책으로 종합일반화해 나가시는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의 노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시기에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농업협동화정책, 사회주의공업화 노선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들은 다 전국 각지의 노동계급과 농민들, 지식인들을 찾으시여 그들의 요구와 의사를 들으시고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깊이 요해한데 기초하여 작성, 제시하신 것이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노선과 정책들은 어느 것이나 다 한치의 편차도 없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침으로 되었으며 인민들의 마음을 틀어잡고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투지를 안겨주는 등대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모든 노선과 정책을 노동계급의 계급적 선에서 사회주의의 근본이념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워나가심으로써 그 어떤 좌우경적 편향도 없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셨습니다.

혁명은 온갖 원수들의 정치적, 사상문화적, 군사적 반항과 공세를 반대하는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혁명노선과 정책 작성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원칙과 사회주의의 근본이념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혁명과 건설의 전 노정에서 그 어떤 준엄한 시련이 닥쳐오고 그 어떤 어지러운 광풍이 불어온다해도 드팀없이 노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근본이념에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혁명노선과 정책을 작성,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는 조건에서도 현대수정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당의 영도를 더 강화하고 온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더욱 심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노동계급적 원칙이 뚜렷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투철한 혁명노선과 정책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 혁명은 복잡다단하고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좌우로 기울어짐이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전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근 70성상
단 한번의 노선상 착오나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영도해 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모든 노선과 정책을 혁명의 가까운 앞날 뿐 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세워나가심으로써 사소한 곡절과 실패도 없이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노선과 정책을 하나 내 놓아도 멀리 앞을 내다보고 내 놓으십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노선과 정책이 혁명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되자면 그것이 혁명의 가까운 앞날 뿐 아니라 먼 앞날까지도 정확히 타산하고 예견된 미래지향적이고 전망적인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혁명의 가까운 앞날 뿐 아니라 먼 장래까지도 정확히 타산되어 있지 않은 노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에게 혁명의 앞길을 밝혀줄 수도 없고 생기와 활력을 줄 수도 없으며 혁명의 길에서 곡절과 실패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비범한 통찰력과 풍부한 실천적 경험에 기초해서 인민대중의 당면한 요구 뿐 아니라 먼 앞날의 요구까지도 과학적으로 헤아리시고 혁명의 현재 뿐 아니라 먼 미래에 가서도 생명력을 가지는 미래지향적이고 전망적인 노선과 정책으로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셨습니다.

조선 혁명은 그 개척기부터 단 몇 일의 앞날까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하고 시련에 찬 어려운 행군길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나의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여도 거기에 우리 혁명의 당면한 요구와 과업 뿐 아니라 먼 앞날에 나서게 될 요구와 과업까지도 정연하고도 명백하게 담으셨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 제시하신 모든 노선과 정책은 현재도, 가까운 앞날과 먼 미래도 다같이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서 특출한 것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여 혁명 승리의 곧바른 길을 밝혀주신 것은 수령님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사상이론적 업적이며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의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가장 귀중한 재부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특사방북 성과 컸다

임동원 특사가 풀어놓은 방북 보따리는 특사 방북에 가장 기대가 컸던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11월 장관급 회담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남북관계가 이번 특사 방북을 계기로 6.15공동선언 직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불러 일으킨다.

네번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날짜와 장소를 박아 확정한 것은 몇 차례씩이나 연기를 거듭해 실망을 안겨주었던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반드시 재개될 것이라는 믿음을 안겨주는 보증수표로 받아 들이고 싶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금강산관광활성화 회담 등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회담 일정도 공개됨으로써 이들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미 합의한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외에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새로이 합의한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동·서부 양쪽에 군사분계선을 뚫고 지나가는 두 개의 육로 통행로가 열리게 된다. 지지부진한 경의선 연결작업이 재개된다는 것만도 반가운데 또 하나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니 뜻밖의 소득이다. 일시 동결됐던 남북관계가 원상회복의 수준을 넘어 종전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근거 없는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합의사항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관건이다. 남북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못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몇 가지 사안에 시기와 장소를 못박아 공개한 것은 최소한 남북 당국만큼은 확고한 이행 의지를 갖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한 것이라고 본다. 남은 문제는 남측 내부 정치권과 미국·일본 당국 등의 협조이다. 북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식량 비료지원은 지난 문민정부 때부터의 관례에 따라 예년 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찬성한 만큼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비료지원 또한 인도적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반대해야 할 명분을 찾기 힘들다고 본다. 미·일 당국도 모처럼 찾아 온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살리는 쪽으로 움직여야 그 동안 여러 차례 천명해 온 대화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 방침과 맥이 닿는다. 며칠 뒤에 열리게 될 한·미·일 대북정책감독그룹 회의 결과에 주목하게 된다.

남북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의 ≪주적론≫폐기와 남측의 대량살상무기 위협해소 요구 등 민감한 사안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읽혀진다. 사실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인 이들 사안에 대해 이렇듯 애매모호하게 에둘러 말할 수밖에 없는 데서 양쪽 당국의 ≪고민≫이 느껴진다. 주적론은 다른 나라들의 예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개념이거니와 6.15 공동선언 정신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본질적으로 남북관계의 범주를 벗어난 국제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북 당국이 필요 이상으로 깊숙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과거 문민정부 초기 과도한 개입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사례에 비춰볼 때 일단 현명하게 대처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연합뉴스 2002/04/06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는 상호 보완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일 오전 11시 북한에서 돌아온 임동원 특사는 남북회담사무실 3층에서 남북이 같은 시각에 발표하기로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임동원 특사가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동해선 철도 및 도로와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 도로 연결 △경추위 제2차 회의 5월 7일 서울 개최 △금강산 관광 제2차 당국자회담 6월 11일 금강산 개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사업 4월 28일 금강산 진행 △북측 경제시찰단 5월중 남측 파견 △합의사항 진척에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동원 특사는 먼저 인사말을 통해 ≪방북 기간 중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나 대통령님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5시간에 걸쳐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이미 합의돼 있던 것을 실천에 들어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임동원 특사는 추가로 ≪**김정일**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뉴욕에서 접촉을 개시하였으며 미국의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의사를 수용할 것을 권고한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일본적십자사와 곧 대화를 개최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 특사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공동보도문에 있는 사항이 중요하게 논의되었고 사실상 **김정일**위원장께서 결단을 모두 내렸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임 특사는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의 문제와 ≪주적론≫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고 소개하고 ≪민족공조냐, 국제공조냐의 문제는 양자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김정일**위원장의 답서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이 현재의 국제 정세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공동보도문에 표기된 대로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리랑≫이나 월드컵과 관련해서는 ≪들어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임동원 특사는 ≪합의가 실천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서로 불신과 의심만 가지면 안 돼고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합의사항을) 추진해 나가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원 특사는 지난 3일 평양을 방문해 예정보다 하루가 연

평양에 도착한 림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가운데)

장된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판문점을 경유해 6일 아침 서울에 도착해 청와대를 방문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임동원 특사는 ≪공동발표문에 포함시키는 내용, 표현방법 등 때문에 늦어졌고, 6일 아침 3시에야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게 됐다≫며 힘들었던 협상과정의 일단을 내비쳤으며 통일부 관계자는 ≪고돌이로 치면 각 패가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4/06

북, 프리처드 美대사 방북권고 수용

대통령 특사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잭 프리처드 미 대북교섭담당 대사의 방북에 관한 우리의 권고를 북측이 수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임 특보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가진 방북 결과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가 5일이나 6일 방북할 것이라는 점도 북측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작년초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후 1년여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던 북미관계 개선이 가시화되고 북미 고위급 대화도 본격 재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프리처드 대사의 구체적인 방북시기와 관련, ≪두 나라(북한과 미국)가 협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에 관한 우리의 권고를 수용한 것은 북미대화 재개의지를 확실히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현재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대화가 고위급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임 특보는 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일본과 곧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을 언급하는 등 북일대화 재개에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혀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려다 중단된 김수학(金秀學) 북한 보건상-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일본 후생노동상의 회담 등도 곧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일본측이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납치의혹에 대해 ≪납치라는 문제는 없으며, 대신 행방불명자 문제는 (일본과)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임 특보는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와 관련, 임 특보는 ≪김 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하고 싶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경복기자
연합뉴스 2002/04/06

보이지 않는 ≪자주≫국방부

국방부의 F-X사업 1단계 평가결과에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동신 국방장관과 최동진 획득실장에 대한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6일 오후 3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자통협,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주최로 F-15K 기종선정 철회, F-X사업반대, 미군기지 완전반환을 위한 국민대회가 사회단체회원, 학생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잔뜩 흐린 날씨에 진행된 이날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은 F-X사업 전면재검토, LPP(연합토지관리계획)재협상, 용산미군기지 반환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작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간에 막대한 군사무기들을 쏟아부었지만, 빈 라덴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며 ≪부시정권은 대테러전쟁을 빌미로 미국의 군수산업체를 살찌우고 낡은 무기들을 팔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수희 공동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F-15K를 사들이는 결정을 한다면 6.15 공동선언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 전제하고 ≪우리는 F-15K 구입반대가 아니라 F-X사업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김종일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은 LPP협정체결을 규탄하는 정치연설을 통해 ≪29일 단 5분만에 체결된 LPP협정을 보며 심한 분노를 느꼈다≫며 ≪무상공여로 쓰던 땅이 쓸모가 없으면 그냥 반납하면 될 것이지 이전비용 1조 5천억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LPP협정의 내용을 비판했다.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LPP협정이 체결되기 10일전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대우자동차가 미 GM사에 1조 5천억에 팔렸는데 이번에 미군기지의 이전비용으로 1조 5천억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LPP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고 주한미군기지가 완전 반환될 때까지 투쟁하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또, 이승헌 민주노동당 자통국장은 F-X사업 규탄발언에서 ≪뒤에 보이는 국방부 건물에 박혀있는 ≪국방부≫라는 글자 앞에는 ≪자주≫라는 글자가 있는데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며 ≪국방부가 F-X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부끄러워서라도 ≪자주≫라는 글자를 가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국방부의 대미의존을 강력하게 비판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홍순석 한청 부의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김동신 국방장관 자진사퇴와 최동진 획득실장의 구속처벌 ▲F-X사업 전면재검토 ▲LPP협정 폐기와 미군기지 전면반환을 요구했다.

결의문 낭독 후 참가자들은 상징행사로 ≪F-X사업 전면 재검토≫, ≪국방장관 퇴진≫ 등의 구호가 쓰여진 종이비행기를 국방부 청사 안으로 날려보냈다.

이렇듯 F-X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가는 가운데 지난 3일 27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F-X공동행동≫은 다음 주에도 집회와 청와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F-X사업 2단계 평가를 앞두고 국방부와 시민사회단체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06

≪공격 중단≫ 이스라엘 규탄집회

우리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에 분노하는 불씨가 지펴졌다.

4일 아침 11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국제민주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가 50여 명은 이스라엘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점령에 대해 규탄했다.

≪다함께≫의 이수현씨는 ≪2000년 9월 이후 이스라엘 군에 의해 14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죽었고, 아이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전투기와 탱크의 폭격에 팔 · 다리를 잃었다≫며 이스라엘의 만행을 고발했다.

이어 이 씨는 ≪심지어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겠다며, 15세에서 60세까지의 모든 팔레스타인 남성을 출두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성공회대의 한 학생은 ≪이스라엘은 자살 테러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가족과 이웃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죽고 다치는 걸 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며 이스라엘의 위선을 비판했다.

홍근수 목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신의 땅에서 내몰고 폭격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샤론 수상이야말로 테러리스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만행을 보면서 침묵할 수 있냐≫며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 중단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에 정착촌 건설 중단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교육 · 물 · 전기 보장 등을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이주영기자
인권하루소식 2002/04/05

북, ≪악의축≫론 고수는 의회 중간선거용

이북 노동신문은 6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론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은 올해 치르는 의회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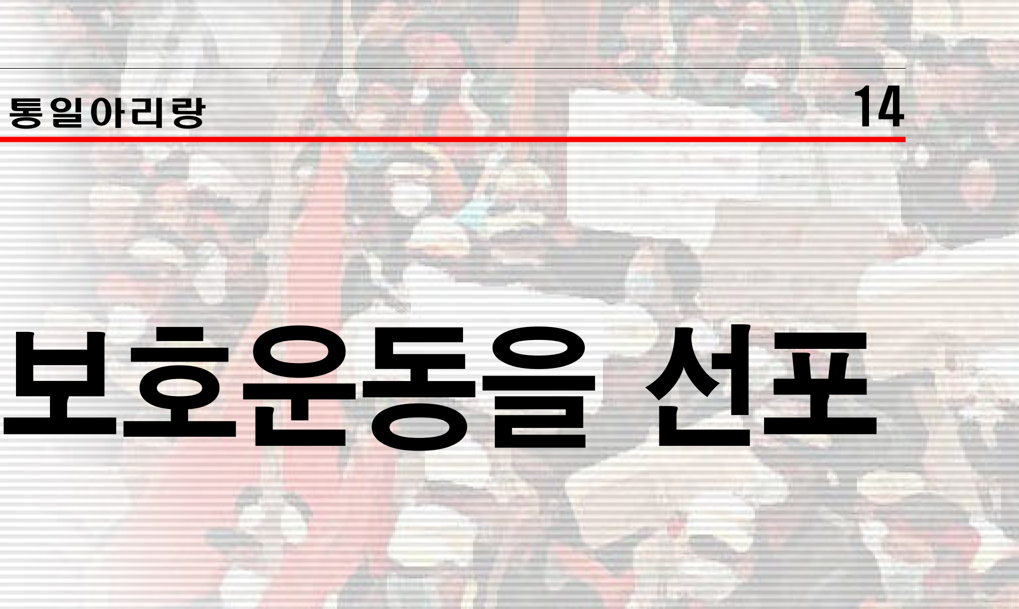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최근들어서 ≪악의 축≫론을 해외에서는 밝히지 못하고 국내에서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보건대 부시는 세상이 비웃고 있는 ≪악의 축≫론에 타당성이라도 있는듯한 인상을 풍겨야 올해 국회 중간선거에서 자기가 저지른 실수로 공화당이 받게 될 타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부시의 ≪악의 축≫론이 해외용이 아니라 국내용이라는 여론이 나돌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론이 전혀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때문에 그는 최근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도 ≪악의 축≫론을 입밖에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신문은 또 ≪미국의 집권자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세계가 주먹질하고 있는 ≪악의 축≫론을 계속 제창하다가는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따돌림 당하는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식기자
연합뉴스 2002/04/06



제2의 상가임대차보호운동을 선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2003년 1월 1일에서야 시행되는 바람에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이 이루어져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등 4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본부가 제2의 상가임대차보호운동을 선포하며 시민행동에 나섰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청와대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시민행동 그 첫걸음으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한 정부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 임차상인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참가자들은 건물주들의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에 대해 국세청에서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며 피켓팅과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선근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시행시기를 1년이나 넘게 뒤로 해놓은 것은 법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긴 기간이고, 이는 정부와 국회가 건물주들에게 횡포를 부릴 시간을 허용해준것이나 다름없다≫며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피해상인 정래환씨는 ≪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건물주가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지를 해왔다≫며 ≪시설권리금 6천만원한푼도 못받고 쫓겨나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더불어사는 세상에서 건물주와 타협할 것을 호소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지금 청와대 부근에서도 많은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다≫며 법시행을 앞둔 현재의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1,000여건이나 되고,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최근의 상담의 절반가까이가 상가임차인피해상담이라고 밝혀 전국적으로 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이 대대적으로 임대료를 폭등시키고, 계약해지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향후 법시행전피해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정부당국에 긴급의견서 및 면담요청서를 발송하며, 다음주부터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 앞에서 대책촉구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시민기자(참여연대 간사)
시민의 신문

발전회사, 복귀 노조원에게 ≪서약서≫강요 물의

5개 발전회사의 경영진이 6일 복귀조합원들에게 파업중지 서약서를 받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발전회사 관계자는 ≪구속자와 명동성당 잔류자 등 30여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발전회사는 특히 복귀 노조원을 상대로 ≪향후 파업을 포함한 불법행위로 정상조업에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에 대해 부당한 서약서를 거부할 것을 조합원에게 지시, 사측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가 강경파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사측의 서약서 강요는 발전소 매각과 관련한 향후 투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신문 2002/04/06

남북대학생 식목일기념 공동 식수 행사

범청학련
bchy.jinbo.net

부경총련, 함경북도학생위원회 ≪잣나무≫ 식수

식목일인 5일 ≪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나무 한 그루가 부경총련 출범식을 치른 경남대학교정에 뿌리 내렸다.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이 함경북도학생위원회에 제안해 공동식수 행사를 갖기로 했다는데...

부경총련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 지난달 29일 함경북도 학생위원회에서 잣나무를 심었으면 한다는 요청과 함께 답신을 보내왔다고 한다.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김현수 부경대학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전 10시경 공동식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부경총련 학생들 앞에서 함경북도 학생위원회에서 보내 온 답신을 낭독했다.

학생들은 부경총련에서 보내 온 공문을 반갑게 받았고 청년학생들이 뜻과 힘을 모으자는 함경북도학생위원회의 답신을 사뭇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남북 청년학생들의 의지와 통일의 염원을 담아 공동식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뗀 백남주(동아대 총학생회장) 부경총련 의장은 ≪통일이 되면 함경북도 학생들과 함께 오늘 심은 나무를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며 그날의 감격을 미리 전달했다. 모든 참가학생들이 일어나≪통일의 꽃을 피워요≫라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통일의 나무 공동식수가 진행되었다.

부경총련 중앙위원들이 대표로 나무를 심었고 참가학생들은 통일 잣나무에 기를 불어넣는다며 큰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민족대단결가를 부르면서 모든 행사를 마쳤지만 학생들은 오늘 심은 잣나무 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다.

≪남북 청년학생의 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공동식수 기념비에 새겨진 글처럼 통일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의지를 거름 삼아 통일의 잣나무가 심겨졌다.

앞으로 잣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겠지만 학생들의 통일의지가 식지 않을 때만이 이 나무의 성장이 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대기련 부울경남지부 공동기자단
유뉴스 2002/04/05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차 례

▶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1)

지금 한(조선)반도의 정세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계속적인 공갈이다. 부시 행정부의 공갈은 제국주의 국가가 적대국들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협박전술의 전형이다. 미국 대통령 부시를 비롯하여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나서서 적대국들을 계속 협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가 작성하여 2002년 1월 8일에 연방의회에 보고했다는 핵공격에 관련한 비밀보고서, 즉 미국이 북(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일곱 나라들을 향해 핵무기를 조준하고 있다는 이른바 ≪핵전쟁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의 일부 내용을 누군가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os Angeles Times)≫에 흘려줌으로써 일련의 협박소동은 더 험해지고 있다. 이 보고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부시가 2002년 3월 20일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조선)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다.≫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 되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공갈을 북(조선)에 대한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행동이라고 보면서,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자는 부시 행정부의 제의는 저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전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핵전쟁태세보고서≫에서 또 다시 입증되었듯이,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전쟁도발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전쟁도발의사를 가졌다고 해서 북(조선)에 대한 전쟁을 제 마음대로 쉽사리 도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미국이 북(조선)과 전쟁으로 맞붙을 경우 북(조선)의 기습적인 대량보복공격으로 참패를 당하고 정상국가로서 영영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조미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전쟁은 적어도 1백 시간 안에 승패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만일 미국이 북(조선)에 대하여 전쟁을 도발하려 할 경우,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심장부와 태평양지역의 군사적 전략거점들을 집중타격하는 기습공격을 퍼부음으로써 미국의 전쟁수행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것이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주체의 군사전략과 영군술≫은 조선인민군에게 준비된 고도의 집중력과 고속의 기동력을 총동원하여 순식간에 미국의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습공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1993년초 클린턴행정부의 전쟁도발책동으로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전쟁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소집된 조선인민군 지휘관 회의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미국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만일 우리가 지게 될 때면 지구도 깨져나갈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그가 미국의 전쟁수행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영군술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모든 군사전략가들이 일치하게 말하고 있는

➡

광고

무용예술론

주체79(1990)년 11월 30일

1. 생활과 무용
1) 무용은 율동의 예술이다
2) 무용은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 발전한다
3) 혁명적 무용예술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4) 무용은 인민의 다양한 생활을 형상하여야 한다
5) 민족적 춤형식을 살려야 한다
6) 무용소품을 기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7) 여러 종류의 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2. 무용창작
1) 무용대본이 있어야 한다
2) 안무구성안이 바로서야 한다
3) 무용음악이 좋아야 한다
4) 춤가락은 성격이 뚜렷하여야 한다
5) 춤구도는 뜻이 선명하고 조형미가 나야 한다
6) 무용의 무대미술은 실감 있고 아름다워야 한다

3. 무용형상
1) 배우는 춤형상의 담당자이다
2) 무용배우는 춤을 잘 추어야 한다
3) 무용배우는 안삼불을 보장하여야 한다

4. 무용표기
1) 무용을 표기하는 것은 무용예술발전의 필수적 요구이다
2) 무용표기법은 과학성과 통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새로 만든 무용표기법은 무용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표기한다
4) 무용표기법을 더욱 완성하고 널리 이용하여야 한다

것처럼 현대전의 승패는 적군을 얼마나 많이 살상하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중력과 기동력을 동원하여 적대국의 전략거점들을 집중타격함으로써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키는 기습공격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도 집중력과 기동력이 떨어지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이 현대전의 실전경험이 증거하고 있는 바다.

1939년에 독일군은 폴란드를 기습적으로 침공하여 개전 18일 만에 폴란드군을 무장해제하였다. 1940년 5월 10일에 확전의 길로 나선 독일군은, 프랑스가 1927년부터 1936년까지 4백억 프랑의 예산을 들여 장장 7백50 킬로미터의 길이로 구축한 마지노 요새를 순식간에 돌파해버리고 6월 14일 파리를 점령하였다. 개전 5주만에 전쟁이 결속된 것이다. 허나 이러한 사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전사에나 나오는 고전적 경험에 속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수행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1967년 6월 5일에 이스라엘의 군사전략가 모세 다얀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선제기습공격으로 첫날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세 나라의 전투기 4백52 대를 파괴하여 전쟁수행력을 마비시켰다. 이스라엘군의 전투기는 46대가 격추되었을 뿐이다. 주변 세 나라의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킨 이스라엘군은 집중력과 기동력을 동원하여 시나이반도와 골란고원을 손쉽게 점령하였다. ≪6일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에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의 군대는 1만8천5백명의 전사자를 냈지만,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6백79명이었다. 당시 아랍연합군은 인구 1억1천만명, 병력 54만7천명, 전차 5천4백4대, 전투기 9백대였고, 이스라엘군은 인구 2백70만명, 병력 30만명(이 가운데 정규군은 7만명), 전차 8백대, 전투기 2백대밖에 없었다.

1973년 10월에 일어났던 제4차 중동전쟁에서 미그21기의 조종간을 잡은 조명록 공군대좌(당시)가 지휘한 조선인민군 공군특공대는 이집트 공군편대를 이끌고 기상천외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시나이반도를 되찾았다. 이 전쟁에서 관정패함으로써 한때 당대의 군사전략가라고 우쭐대던 모세 다얀은 결국 몰락하였다.

방대한 전쟁물자를 장거리 수송하여 배치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미군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전략과 영군술에 따라 기습공격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조선)에 대한 전쟁도발의 사를 가지고 있어도 제 마음대로 쉽사리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전쟁을 제 마음대로 쉽사리 도발하지 못하는 현재의 조건에서 부시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북(조선)에 대한 협박전술은 전쟁도발의 전주곡이 아니라 조미 정치협상 재개의 전주곡이다. 여기서 부시 행정부의 협박전술에 들어있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정치적 의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부시 행정부의 협박전술에는 장차 재개될 조미 정치협상과 관련된 저의가 깔려있다. 1994년 10월에 제네바 조미기본합의서를 채택했던 당시 미국의 협상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우리는 그 협박전술에 깔려있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다. 갈루치는 이렇게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북(조선)과 만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그러한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조미 정치협상의 현안문제들에 관련하여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2002년 2월 14일자) 갈루치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은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조미 정치협상에 나서겠다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재개될 조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내려면 어떤 행동으로 나와야 할까? 협상 이전에 협박소동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별수가 없을 것이다. 조미 정치협상이 재개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부시 행정부가 북(조선)에 대하여 공갈발언을 연달아 내뱉고 있는 숨겨진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갈루치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내려는 부시 행정부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오늘의 조미관계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북(조선)이 부시 행정부의 굴복을 받아내려는 형국으로 전세는 역전되었다.

1990년대의 클린턴 행정부 전반기에는 북(조선)에 대해서 무조건 위협과 협박, 강압과 공갈을 앞세울 수 있었지만, 지금 부시 행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만일 북(조선)이 이라크처럼 군사력이 빈약한 나라라면, 또 만일 북(조선)이 미국의 심장부와 군사적 전략거점들에 대한 기습공격력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라면,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전반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조선)은 미국의 심장부와 전략거점들을 타격권에 안에 두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군사강국이다. 앞으로 재개될 조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내려는 부시 행정부의 주관적인 의사는 북(조선)이 신흥군사강국이라는 사실 앞에서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내일 계속)

한호석(통일학연구소장) - 2002년 3월 15일 작성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통일운동의 대하 (1)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탁월한 영도로 통일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통일운동의 대하를 마련하시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민족문제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인공적인 민족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역사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시었다.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이남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전에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천신만고를 겪으시며 조국광복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것은 결코 분열된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인 조선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부강발전을 이룩하여 조선을 존엄있고 부강한 나라로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민족분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가슴아프게 여기시면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 백두산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완수하는 것을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으시었다.

분열의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뀔수록 더해지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끝장내시기 위해 80고령이 되신 몸으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주석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잠못 이루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수령님대에 기어이 백두산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하시는 것을 자신의 숭고한 역사적 사명으로 받아안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60년대 초의 4・19의거를 민중봉기로, 5・16군사정변을 군부독재정권수립을 위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의 재편으로 규정하고 1980년 5월 광주민중봉기를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반파쑈민주화투쟁으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을 반미자주화투쟁의 심지에 불을 달아놓은 투쟁으로 분석하시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남조선인민들이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려면 마땅히 반미구호와 조국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적 예속에서 벗어나고 조국통일이 실현되어야 남조선인민들이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포함한 전체 조선민족의 자주적인 발전과 융성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선집 제1권, P・82)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이남에서 민중의 통일운동의 장성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어 반미자주화투쟁의 구호를 전면에 제기하시고 자주없이는 민주도 통일도 없다는 탁월한 사상을 밝혀주시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이 새롭게 고양되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기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북과 해외동포들과 세계 진보적 민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줄기차게 전개되게 되었다.

(계속)